



1

Cell Struggles

파운드리 서울의 난생 첫 그룹전, <Cell Struggles>의 작가 아나스타샤 코마는 지금 가장 민감하게 움직인다. 생존을 위해.

Text 소희(Sohee, 권소희) **Art** 위시(Wish, 김성재)

© Courtesy of the artist, Management, New York and FOUNDRY SEOUL, Seoul



2

Anastasia Komar, 'EDen III',
Acrylic and electroplated polymer on board,
160 X 129 X 19 cm, 2024

Anastasia Komar, 'Archaea',
Acrylic and glass polymer on board,
104 X 81 X 21 cm, 2023

© Courtesy of the artist, Management, New York and FOUNDRY SEOUL, Seoul

줄곧 뉴욕에서 선보이던 작가의 작품을 서울의 파운드리 서울에서 볼 수 있게 됐다. 시작부터 잘 맞은 것 같다. 1년 전쯤 파운드리 서울에서 인스타그램으로 연락을 해왔다. 그 이후로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다. 작년 9월 프리즈·키아트 아트 위크와 광주 비엔날레 참석차 한국에 방문했는데, 그때 처음 파운드리 서울 팀과 만났다. 그때 꼭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농칠까 두려울 정도로.(웃음)

한국은 어땠나.

정말 정신없는, 다채로운 경험의 연속이었다! 광주에서 NCT WISH가 비엔날레 홍보대사로 개막식의 문을 여는 순간부터 공항으로 가는 도중 ‘노래방 차량’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까지 모두 꿈같은 장면이었다. 절대 잊을 수 없다.

파운드리 갤러리의 첫 그룹전이다. <Cell Struggles>에는 작가를 비롯한 다섯 명의 여성 작가가 모였다.

이렇게 재능 있는 작가들과 함께 전시할 수 있어 정말 기쁘다. 이미 페르난다 갈 바오Fernanda Galvão와 오묘초Omyo Cho의 작품을 알고, 또 보고 있었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 서로의 작품이 공간 안에서 어떻게 공명하고, 어떤 대화를 만들어낼지 기대된다. 내 작업실에서 작품은 고립된 채 존재하지만, 전시장에 나가게 되면 주변의 모든 것과 대화하기 시작한다. 이런 ‘공존’은 작품의 내러티브를 강화하기도 혹은 변화시키기도 하는 것 같다. 전시장은 아이디어와 의도가 부딪히고, 진화하는 역동적인 장소니까.

공존, 진화, 역동. 전시 제목과 닮아 있는 어떤 움직임이 느껴진다.

내 작업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형태를 바꾸고, 진화한다. 살아 있는 유기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EDEn’ 시리즈에서는 세 개의 개별 작품이 하나의 시각적 흐름으로 융합된다. 패널들이 서로 충돌하고, 조각적인 요소들은 형태와 재료의 층을 통해 점차 진화한다. 이런 자연스러운 흐름은 생물의 성장 과정과도 닮았다.

전시장에 놓인 각각의 작품처럼, 작가의 작품도 하나의 캔버스에 2D와 3D가 각각 배치되고 존재했다. 평면 회화는 분명 작가의 손에서 직접적으로 이뤄진 것일 테지만, 그 위에 아무런 상관없는 3D 조각이 난데없이 놓여 있는 것 같달까. 거기서부터 또 새로운 맥락이 탄생한다.

확실히 많이 한 고민이다. 내 작업은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하나는 수작업으로 완성한 회화인데, 붓질의 층이 겹겹이 쌓여 있어 정확히 동일하게 복제할 수 없는 면이 있다. 반면 다른 하나는 3D 프린팅 조각인데, 매우 정밀하고 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그 또한 고유한 맥락을 지니고 있다. 이 회화는 보편적이고 무형의 세계, 즉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항상 존재하는 영역을 상징하고, 조각은 인위적으로 설계된 자연, 다시 말해 ‘조작된 생명체’를 반영한다. 하나는 인간적인 감정과 깊이 연결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포스트휴먼, 어쩌면 외계 생명체 같기도 하다. 이 두 요소가 한 캔버스 안에 공존함으로써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 예컨대 ‘우리는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물음이 동시에 촉발한다.

3D 조각의 형태는 동양의 ‘용’ 같기도 했다. 다른 문화 속에서 탄생한 형태겠지만 어떤 점에서 유사하고, 이어져 있다고 생각하니 신기하기도 하다. 어떤 구상으로 나온 형태인지 궁금하다.

‘EDEn’ 시리즈와 투아타라Tuatara 작품의 조각들은 파충류 형태를 띤다. ‘용’에 비유되는 것도 충분히 이해된다.(웃음) 이 생명체들은 마치 걸어 다니는 화석 같고, 여전히 우리 곁에 존재하는 생명체 중 가장 오래된 존재다. 내 작업에는 파충류, 이를테면 뱀 같은 형상이 자주 등장한다. 그 이유 중 하나는 파충류가 오랜 시간 의학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아주 철저히 연구되어 온 생물이기 때문이다. 또 이들은 여러 세대, 여러 문화권에 걸쳐 치유, 변형, 신비 같은 의미를 지닌다.

이질적인 것, 서로 다른 과정을 거친 작업들이 붙어 결국 ‘공존’한다. 이는 한 개체 안에서도 혹은 지구촌 전반에도 존재하는 일이다.

우리는 자신을 하나의 독립된 존재(자아)로 여기지만, 생물학적으로는 수백만 개의 박테리아와 세포로 구성된 생태계다. 이런 미생물과 세포들이 공존함으로써 우리가 생존할 수 있다. 진화는 합성생물학synthetic biology과 인공 생명체에 의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이 시점에서 공존은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된다. 내게 작업은 일종의 개인적 적응 방식, 즉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을 이해하고 다가올 변화에 대비해 스스로를 준비시키는 수단이기도 하다. 이 과정을 통해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를 나아가고 있는지, 또 무엇이 다가오고 있는지를 탐색한다.

우리는 그저 같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연결되고 공생할 수 있는 것일까.

단순히 함께 존재하는 것 이상이라고 생각한다. 그건 소통과 적응의 문제다. 세 포들이 생체전기신호bioelectric signals를 통해 서로 소통한다는 흥미로운 연구들이 있는데, 나는 그런 개념을 시각적으로 반영하고자 한다. 지금처럼 과잉 연결되고 자극이 넘치는 시대에는 혼합성hybridity이 일종의 생존 메커니즘이

되는 것 같다. 즉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잃지 않으면서도 끊임없이 반응할 수 있는 방식 말이다.

지금의 작업에 이르기까지 가장 중요했던 질문 하나가 있다면 무엇일까.

나를 이끌어온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처럼 빠르게 등장하고 있는 합성된 자연에서 우리는 어떻게 중심을 잃지 않고 존재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단순히 살아남는 것을 넘어 그 안에서 어떻게 진화하고 번영할 수 있을까?”이다.

작가의 작품에 대해 질문하거나 상상하는 일 자체가 인식의 범위를 넓히는 일 같다. 한편, 아주 추상적이거나 감성적인 의미나 재미는 없는지도 궁금하다.

투아타라에 ‘제3의 눈’에 대한 언급이 있다. 이 눈은 어린 개체에서만 볼 수 있는 광감수성 기관으로, 생체리듬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준다. 하지만 생물이 성장하면서 이 눈은 비늘로 덮여 외부에서는 보이지 않게 된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 점이 매우 아름답다. 어린 시절 우리가 자연스럽게 지닌 민감함은 시간이 지나며 사라지지만, 다시 그런 감수성과 연결되기 위해 애쓰게 되는 평생에 대한 ‘삶의 은유’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사소한 사실이겠지만, 나는 작가의 회화가 왜 캔버스 바깥(옆면)까지 이어지는지도 궁금했다.

내가 그리는 전자기장은 캔버스의 가장자리에서 멈추지 않는다. 공간 속으로 계속 확장되는 형태다. 그림이 전면, 표면을 넘어 옆면까지 확장된 건 그 흐름을 직사각형 형태에 가두지 않고, 온전히 경험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작가가 건축학을 공부한 점도 눈에 띈다. 지금 작업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 같은데, 어떤 공부를 했는지 조금 더 자세히 말해 줄 수 있는가.

무엇보다 필요한 도구들을 배웠다. 개념 개발부터 실제 제작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능력 말이다. 나는 예술가로 완전히 전향하기 전, 10년 정도 건축 일을 했다. 그리고 그 경험은 지금의 작업 방식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양한 관점에서 재료, 스케일, 공간적 논리를 고려하는 법을 배웠고, 지금의 창작 과정에서도 여전히 그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작업을 하다 ‘이런 기술이 세상에 있었더라면’ 싶었던 적도 있다.

생각해 본 적 있다.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건 ‘특이점singularity’ 개념이다. (특이점이란 인공지능의 발전이 인간 지능을 초월하는 순간을 의미한다.) 하지만 잘 모르겠다. 오직 이성적 시스템만으로 구성된 세상은 생명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거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설계되고 선형적으로 작동한다면 우리가 복잡성과 혼돈, 미지의 세계에서 느끼는 경이로움은 사라질지도 모른다.

다른 말이지만, 혹시 챗GPT를 자주 쓰는 편인가.

챗GPT는 정말 대단한 도구다! 정보를 분석하는 데 아주 유용하다. 다만 가끔 헛소리를 할 때도 있어 조심히 사용한다.(웃음) 꿈 해석이나 연애 조언 같은 걸 묻기도 했는데, 의외로 효과가 좋았다.

평소에 가장 많이 하는 상상이 있다면.

종종 나의 생물학적 수명이 다한 후에도 세상을 보고 느낄 수 있기를 상상한다. 어쩌면 어떤 형태의 기술공학을 통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아주 최소한의 방법으로는 내 작품을 통해서 가능하지 않을까. 작품은 내가 떠난 뒤에도 이 세상에 남을 수 있으니까.

끊임없이 변화하는 기술과는 다르게 예술은 남는다.

정말 공감한다. 우리가 기술과 점점 더 융합될수록 오히려 인간적인 감성을 지닌 예술을 더 갈망할 것이다. 예술은 ‘영혼’이 머무는 곳이다. 수치로는 절대 환산할 수 없는 것을 비추는 거울 같은 존재다.

오늘 무엇보다 공존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했다. 역사를 돌아해보면 평화로운 공존은 없다. 분쟁, 분열, 투쟁, 갖가지 장애물이 도처에 있다. 하지만 그런 접촉이 다음 공존, 다음 진화를 위한 하나의 단계 같기도 하다. 요즘 작가 자신이 공존을 위해 가장 부딪히는 건 무엇인가.

무엇보다 뉴욕에서의 생활이 주는 과도한 자극이다! 미디어, 기술, 끊임없는 소음. 이런 것이 지속적인 ‘고강도 불안’을 만든다.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민감한 존재이고, 의식하기 전에 이미 많은 걸 감지할 수 있다. 이런 예민함, 감각은 강점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그것과 어떻게 함께 살아갈지를 배워야 하는 과제이기도 하다.

그나저나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존재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내 작품에 나오는 형상들이 생물학적 경계가 흐릿한 존재인 것이다. 익숙하면서도 상상하게 하는. 그런 하이브리드 형태로. 그것은 ‘다음에 올 무언가’를 상상해 보는 방식이기도 하다. ■



Anastasia Komar, 'EDEn I',
Acrylic and electroplated polymer on board,
152 X 128 X 27 cm, 2024